

한주라이트메탈, 2023년(연결) 1분기 매출액 594억 원 기록

- ▶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한 원가율 증가로 일시적 영업이익 감소
- ▶ 오는 6월부터 슬로바키아 공장 풀캐파 생산을 통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향상 기대

<2023-05-30> 초경량 알루미늄 부품 솔루션 기업 한주라이트메탈(198940)이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94억 원, 영업손실은 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사업영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엔진부품 20.7%, 샤시 부품6.8%, 해양 선박 부품 64.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양 선박 부품 신규 개발품 양산 확대와 슬로바키아 해외법인의 영업추가로 인한 샤시 부품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한 원가율 증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슬로바키아 유럽 공장 라인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주라이트메탈 관계자는 “고객사와의 계약을 토대로 알루미늄 시세를 반영해 판매가격이 연동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로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2년 1분기 LME시세가 톤당 약 3270불에서 23년 1분기 2,398불로 큰 폭의 하락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안정된 시세흐름을 보이고 있어 손익구조 변동 이슈는 해소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1분기 때 가장 큰 비용이 발생된 슬로바키아 유럽공장도 증설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는 2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판매가 협의를 진행중이며 신규 제품 개발 시 가격 요인 점검을 체계화해 제조 물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주라이트메탈은 지난 4월 총 14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선행조건인 KITIA회원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30억원을 성공적으로 투자유치 한 바 있다. 오늘 6월 기술심사를 거쳐 개발 업체로 선정되면 7월부터 과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